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ts of Vulnerable Elderly Pet Owners

Kyungmee Lee, Taeyoung Choi, & Okji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meaning of 'parenting experience' is by deriving common central themes and core meanings that appear through an interview survey base on vulnerable elderly pet owners as the trend of more aging pet owners increase. The 5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ith the elderly living alone over the age of 65 and currently raising dogs. The target (www.taguette.org)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on a FGI (focus group interview) which was conducted with experts to obtain content validity evidence. As a result of the study, 11 core meanings and 5 central themes were identified. Although pets were the only pleasure in the life of the elderly by becoming a family member,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even take care of themselves due to the absence of others around to help take care of the dog. It is suggested that social support for pet care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s well as to solve the problem of solitary death.

Key Words: The Vulnerable, Aging of Pet Owners, Companion Animal Effect, Experience of Parenting, Social Support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이 경 미* · 최 태 영** · 김 옥 진***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반려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1인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공통된 중심주제와 핵심의미를 찾았다. 자료분석에는 타겟(www.taguette.org)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결과 11개의 핵심의미와 5개의 중심주제를 확인하였으며,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에 유일한 낙이며 가족이 되었지만, 양육을 도와줄 주변인의 부재로 자기돌봄조차 힘든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시급한 사회적 지원을 제언한다.

핵심어: 취약계층, 반려인의 고령화, 반려동물효과, 양육경험, 사회적 지원

□ 접수일: 2022년 9월 11일, 수정일: 2022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 주저자, 원광대학교 농학과 박사과정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Wonkwang Univ., Email: tensi927@daum.net)

** 공동저자, 원광대학교 농학과 박사과정

(Co-author, Doctoral Course, Wonkwang Univ., Email: ctaeoung1@naver.com)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농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Wonkwang Univ., Email: kimoj@wku.ac.kr)

www.kci.go.kr

I. 서론

현재 한국사회의 큰 특징으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증가를 든다. 이들 현상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과 위안의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2070년 기간 중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8.9%p로 세계 전체 비율인 10.3%p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전체인구의 4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통계청, 2022). 이를 통해 한국 반려인구의 고령화 역시 급증하여 향후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20년 한국은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었다. 통계에 따르면 총 반려동물양육가구 312만 9천 가구 중 50대(2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40대(23%), 60대(17%), 30대(14%), 70대(10%), 20대(7%) 순이었다. 다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계산한 결과 16%로 20, 30대보다 높아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미 한국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0).

〈표 1〉 전국 연령대별 반려동물보유가구현황¹⁾

연령대	총 가구	반려동물보유가구		비율(%)	65세이상반려 동물보유가구
		5세 단위	10세 단위		
계	20,926,710	3,128,962			503,987 (16.1%)
20세미만	77,462	4,656	4,656	0.1	
20-24세	584,263	56,046	216,038	6.9	
25-29세	1,111,985	159,992			
30-34세	1,333,835	196,602	437,839	14.0	
35-39세	1,788,700	241,237			
40-44세	1,959,334	289,394	703,551	22.5	
45-49세	2,300,169	414,157			
50-54세	2,420,667	468,757	910,632	29.1	
55-59세	2,389,072	441,875			
60-64세	2,228,859	352,259	545,483	17.4	
65-69세	1,558,102	193,224			
70-74세	1,201,089	127,745	310,763	9.9	
75세이상	1,973,173	183,018			

1) 통계청(2020)의 ‘주연령대별 반려동물 보유가구 통계자료’를 재편집함.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정서적 위안과 신체적 건강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90세 노인이 암에 걸려 기르던 반려견을 공중화장실에 묶어 유기한 사연이 방송에 나오면서 고령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해외 여러 논문에서 노인들의 반려동물소유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노인 2,5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비 소유자보다 우울 증상이 심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지역에 사는 노인 314명 대상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보다 건강 습관과 지역의 사회지원이 노인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적, 종단적 조사에서 생활 관리, 수입 능력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반려동물 소유에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예로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들 소유자들은 도시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Yamamoto & Hart, 2019).

이 시점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고령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얻은 삶의 경험과 직접 겪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들이 반려동물과 살면서 반려동물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취약계층에 있는 65세 이상 고령반려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용어 정의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 소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기후변화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등 취약범위의 세분화에 따라 용어 정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외 용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직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정규, 2013).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령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미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12종류로 구분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취

약계층을 분류하고 있다(서울시, 2019).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해 ‘반려동물돌봄 취약계층’ 용어 역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건강한 인간-동물유대(HAB)를 유지하는데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별위기 상황을 맞이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성호, 202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인간과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애완동물의 용어를 대체하고 있다. ‘완’이라는 장난감과 희롱하더라는 한자 의미를 의식하여 청소년 대상 교재에도 용어변경을 교육하고 있다(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18).

반면 반려인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전적 정의가 없으나 사회적으로 기존의 소유주의 의미를 표현한 견주, 묘주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쓰이고 있다. 영어로는 반려인이라는 표현은 없고 단순히 펫소유주(pet owner)이며 일본 역시 키우는 소유주(飼主)로 쓴다. 반려인이란 용어는 한국인의 정서와 언어표현에서 온 신조어일 수 있으나 이미 관련 광공서 및 미디어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말로 정착된 듯하다. 좀 더 명확한 명칭의 정의를 위해 여기서 반려인의 용어를 ‘가족의 개념을 갖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고령반려인’은 ‘가족의 개념을 갖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이라 함은 반려동물을 돌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의 가족으로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2. 노인의 반려동물 양육경험

국내 취약계층 노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활용해 ‘노인과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 ‘취약계층과 반려동물’, ‘노인과 개’, ‘노인과 고양이’, ‘1인가구와 반려동물’, ‘1인가구와 반려견’, ‘1인가구와 고양이’를 검색어로 한 논문 가운데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8편을 선정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노인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연구를 선택하고 시설노인대상과 동물매개 분야는 제외했다.

〈표 2〉 노인의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김석은 (2020)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의견 설화	문화기술지 분석/FGI	반려동물이 정서적, 경제적, 문화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김석은 (2021)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 반려인 400명	설문조사	반려동물 양육지식이 양육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김성호 (2018)	반려동물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찰	취약계층 (서울N구A단지)	설문조사	반려동물양육에 따른 만족감 은 높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옥진 (2018)	노인에 대한 반려동물의 이점에 대한 고찰	1980년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논문	문헌조사	반려동물이 노인에 주는 이점 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으나 제한점을 극복한 연구가 필요 하다.
문영희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내외 관련 논문	문헌조사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에 긍정 적이므로 동물매개프로그램 마련과 노인시설에 반려동물 도입이 필요하다.
이성은 (2017)	노인의 반려동물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서울서베이가구용 데이터(60세이상 노인 총4,717명)	데이터조사	개인수준의 변수 중 성별, 혼 인상태, 소득, 가구원 수, 주택 형태와 지역수준의 변수 중 1 인당 공원면적이 노인의 반려 동물 소유에 영향을 미친다.
이성은 (2022)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서울서베이가구용 데이터(65세이상 노인 5,476명)	데이터조사	반려동물을 소유한 노인은 외 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장은정 (2018)	1인 노인가구와 반려견의 공생을 위한 주택사례 연구	사례분석(국내외 반려견공생주택 6곳)	사례조사	노인가구의 반려견공생주택은 코하우징 형태의 공동체주택 이 적합하다.

먼저 사육과 양육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육’은 가축과 짐승을 대상으로 키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 반면 ‘양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사육 대신 양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개념을 중시하여 보살핀다는 뜻이 포함된 양육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국내 반려동물과 노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동물매개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반려동물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동물매개분야가 많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효과연구는 해외문헌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관련 검색어를 통해 8편의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살

펴본 결과 양육과 관련된 논문은 전체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3편(김석은, 2021; 이성은, 2017; 2021)과 취약계층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1편(김성호, 2018) 등 총 4편이었고 나머지 4편은 동물매개중재를 포함해 모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였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반려인의 지원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노인이 반려동물을 소유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1인가구 노인 반려인의 주거형태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 E구의 N복지관에 의뢰하여 총 5명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5명의 고령자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1인가구이다. 그리고 41년생부터 48년생까지로서 평균연령은 77.2세이며, 반려동물로써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

<표 3> 연구참여자 현황

이름	성별	출생년도	경제수준	가구특성	반려동물특성
참여자A	여자	41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반려견(15살)
참여자B	남자	48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반려견(4살)
참여자C	여자	47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반려견(1년7개월)
참여자D	남자	41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반려견(1살)
참여자E	여자	47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가구	반려견(4살)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취약계층 고령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5명의 고령자와 2021년 10월 5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30일간 자택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처음 10일 동안은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을 위한 관계 형성에

집중하였으며, 나머지 20일 동안은 반려견 양육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고령자의 특성상 답변 내용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므로, 대부분 녹음으로 진행하였고, 조사 후 전사하여 텍스트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많은 내용의 텍스트 자료 중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제거한 후,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후 핵심의미를 도출하였다. 핵심의미의 도출을 위하여는 타게트(www.taguette.org)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이 핵심의미를 바탕으로 중심주제를 형성하였으며, 이 과정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FGI를 위한 전문가 현황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김○하	남자	50대	교수
한○훈	남자	40대	반려견훈련사
전○성	여자	50대	사회복지사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자는 다년간 동물매개교육을 하고 있으며 반려견 훈련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질적조사에 지켜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서울시 E구 N복지관을 통해 연구의 목적,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녹음에 관한 사전 동의와 함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에게는 반려견 기본훈련법을 알려주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IV.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를 파악하여 취약계층 독거노인이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험과 관련된 87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냈다. 이를 근간으로 다시 25개의 명시된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11개의 핵심의미로 묶은 후 총 ‘반려동물과의 만남’,

‘반려동물 돌봄형태’, ‘반려동물 양육효과’, ‘반려동물양육에 대한 미래준비’의 5개의 중심 주제로 하여 다음의 <표 5>과 같이 중심주제와 핵심의미로 분류될 수 있었다.

<표 5>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분석결과

중심주제	핵심의미
반려동물과의 만남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위
반려동물 돌봄형태	반려동물을 부르는 호칭
	도와주는 주변인의 유무
	양육정보를 취득하는 경로
반려동물 양육효과	키우면서 좋은 점
	키우면서 힘든 점
반려동물양육 관련 미래준비	양육자가 키우기 힘든 상황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음의 상황
	현재 반려동물 사망 후 재양육 의사

1. 반려동물과의 만남

1)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과거에도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키우는 것에 대한 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운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 때 그 종류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섬 살 때 장사하면서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근데 못 살겠더라고. 고양이는 오줌냄새가 너무 독하고 강아지는 거기다대면 양반이여. 개도 고양이도 키우면 그렇게 잘 커요. 그렇게 새끼도 잘 낳고(연구참여자 A).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해서 개, 고양이, 새를 다섯 번 정도 키워봤어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외국에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해외로 나가야 할 때 마다 분양과 파양을 반복했어요(연구참여자 B).

2)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위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혼자사는데 외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들이나 딸과 같은 가족이 반려동물을 주었다는 경우 역시 부모가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데리고 왔더라는 이유가 많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따라온 유기견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반려동물로 삼은 예도 있었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지나가던 길에 사거나 얻는 경우 혹은 자식들이 가져다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년 됐는데 우리 아들이 나 적적하다고 갖다 줬어요. 그때가 아마 3개월인가 몇 개월이었을 거예요(연구참여자 E).

내가 그때는 볼 때 이빨이 착 나고 이쁘더라고. 근데 막 사람들이 쫓아내. 내가 파지 좁은 할망구여. 리어커를 끌고 땡기는데 막 돌아보면 쫓아와. 그렇지 저것이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그때는 팔뚝이 500원이며. 큰돈이며. 그걸 주면 정신없이 먹어요. 저것을 누가 버렸구나. 불쌍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요(연구참여자 A).

누가 길거리에 3마리를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 강아지 팔 거예요. 하니까 아니예요. 하더라고요. 세 마리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한 마리만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샀어요(연구참여자 B).

2. 반려동물 돌봄형태

1) 반려동물을 부르는 호칭

연구참여자들이 반려동물을 부를 때, 자신이 직접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지만, 반려동물에게 자신을 호칭할 때는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가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그 일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복돌이라고 부르는데, 자식이지 이거 사람하고 안 바뀌요. 할머니라고 하고 엄마라고. 일동 사람들이 그 개가 살아있냐고 그러. 그러면 살아있지. 나보다 건강하다고. 어떤 아저씨는 할머니하고 똑같이 나이 먹을 거래(연구참여자 A).

알콩이 부를 때, 우리 딸이 자기를 엄마라고 하고 나는 할머니라고 해요. 지금은 엄마라고 그래요. 내가 엄마라고 이제 내가 '엄마' 소리를 해요. 이 동네에서 알콩엄마라고. 알콩 엄마야(연구참여자 C).

2) 도와주는 주변인의 유무

연구참여자들은 반려동물 돌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사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가끔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때는 본인이 거동을 잘 못 하는 경우

와 미용, 병원치료 등 비용이 드는 경우 자녀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본인이 주로 돌봄을 하고 본인이 아플 때조차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었다.

내가 허리 수술하고 다리가 좀 힘들어서 아들이 가끔 저녁에 산책시켜주고 해요. 올 때도 있고 못 오는 날도 있는데 그냥 거기서 저녁밥만 먹고 나면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목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연구참여자 E).

여기 구청 앞에 돈가스 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짬뽕. 이걸 꼭 영양제를 사주더라고 그런 양반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안 온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 뭐. 별로 그렇게 도와준 사람 없고 안 도와줘도 살아요(연구참여자 A).

허리가 아파 뭘 굶어내야 한대. 병원에 갔다 세상없어도 와. 몇 번 죽을 뻔했어. 그래도 와. 저걸 밥을 줘야 하나(연구참여자 D).

3) 양육정보를 취득하는 경로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이번 연구참여자들의 정보처는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정보를 얻는 것에는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정보처를 살펴보면, 핸드폰 사용이 자유로운 경우는 유튜브를 보거나 TV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얻었고 자녀와 자주 접촉하는 경우는 자녀에게 묻거나 했다. 그 밖에는 다니는 동네 애견미용실에 묻기도 했고 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에게 묻는다고 했다. 궁금한 것을 전문가에게 묻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든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까지는(묻지 않았다). 가끔 짓으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짓는 거 예방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도 강아지니까 짓겠지. 그래요(연구참여자 B).

키우면서 별로 묻지는 않았는데 가끔 집에 오시는 돌봄도우미분한테 초롱이에 대해 좀 대화를 하고. 딱히 다른 곳에는 물어본 적은 없고(연구참여자 D).

미용원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서 물어보지. 의사도 비싸(연구참여자 A).

3. 반려동물 양육효과

1) 키우면서 좋은 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무엇이 좋냐는 질문에 연구참여자 모두 한결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낙으로 표현했다. 또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정서적 위안이 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령자로 산책을 잘 못

하고 있지만 산책을 자주하는 참여자는 하루 4시간 이상의 운동으로 신체적 건강도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는 애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정이 들어 갖고, 이걸 의지를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항상 심란하고 좀 외로운 것이 있었지만 애가 있으니깐 모든 게 편안하고 좋아요(연구참여자 C).

그냥 예뻐요. 진짜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내가 어디 나갔다 오거나 하면 반가워 해 주고 내가 어디 나가면 애가 울더라고요. 내 옆에 딱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 없으면 너무 진짜 허전하고 안될 것 같아(연구참여자 E).

유일한 낙이예요. 밖에 있다가도 애 생각에 집에 일찍 들어와요. 하루 4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보람이는 지치지 않아. 내가 지치지(연구참여자 B).

2) 키우면서 힘든 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또 양육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났다. 반려동물이 비교적 어린 경우는 짓는 문제와 산책 문제를 들었고 노령견의 경우는 아픈 것을 들었다. 양육자가 몸이 안 좋은 경우는 산책 뿐 아니라 미용과 목욕 등 일상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했다.

물지는 않는데 많이 짓고 심하게 짖어요. 너무 좋아도 짓고 누가 와도 막 짖어대요. 너무 짖어대기 때문에 동네 분들에게 좀 미안하고 이웃들 보기가 미안해서 그런 거지(연구참여자 C).

그게 아프면 힘들지. 이쪽 눈이 백내장인데 수술 안 시킬 거요. 같이 살다 죽으면 돼요. 나도 다 됐고 저도 다 됐고(연구참여자 A).

씻기는 거 미용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마당에서 키울 때는 그냥 키웠는데, 아들이 가끔 와서 산책해주고 그래도 안 오면 힘들지요(연구참여자 E).

4. 반려동물 양육 관련 미래준비

1) 양육자가 키우기 힘든 상황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아프거나 사망 시 반려동물 돌봄 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주변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맡아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했다.

또 본인이나 키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미디어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간접경험을 하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겠다 싶으면 줘야지. 돌봄이 아줌마가 오거든. 이 아줌마가 개를 좋아해요(연구참여자 B).

오라버니가 하나 있는데 돌아가셨어. 내가 사료랑 물이랑 그때는 방석도 있었는데 이틀인가 사흘 만에 왔는데 먹지도 않고 굶고 그대로 있어. 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런 놈이 있나 내가 놀랬어요(연구참여자 A).

내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개 혼자 남아가지고. 보기 안 좋더라 고요. 내가 만약 죽으면 이것도 저렇게 되나 마음이 안 좋아(연구참여자 C).

2)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음의 상황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먼저 죽음을 맞는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보다는 먼저 가야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참여자는 반려동물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거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때 봐야 알겠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연구참여자 D).

보람이가 나보다도 오래 살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지. 알지? (연구참여자B)

3) 현재 반려동물의 죽음 후 재양육 의사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반려동물이 죽으면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본인의 연령을 고려해 새로운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들었다. 반려동물 돌봄을 힘들어하는 연구참여자 경우는 만일 주변에서 목욕, 산책 등을 대신해준다면 또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돌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애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B).

이게 키운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니예요. 목욕시키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형편으로. 간식 사 먹이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별거 아닌데 몇만 원 들어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연구참여자 C).

마음적으로는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서 도와주면 계속 키울 것 같아요. 훨씬 적적하지도 않고(연구참여자 E).

V. 결론 및 제언

이번 연구에 참여한 취약계층 고령 반려인 5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구참여자 모두 반려견을 키우게 된 이유와 키우면서 좋은 점으로 외로움의 감소를 들었고 반려견에 대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족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돌봄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점은 고령의 1인 가구로 주위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서 본인이 아플 때조차 병원치료를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참가자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나이를 보면 14살의 노령견을 제외하면 대부분 1~4살 사이의 건강한 나이였다. 참가자의 평균연령 77.2세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양육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키우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HAI)을 연구한 많은 논문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노인과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는 조사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양적 연구는 주로 외로움과 육체적 건강 등과 같은 주요주제들과 반려동물 소유와의 관계를 다루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노인들에게 주는 동반자적 관계와 사회적,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Johnson et al., 2019).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역시 반려동물이 특히 노인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와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 고령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반려동물 양육실태를 보면 2008년을 정점으로 양육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를 들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고령자가 자신의 연령을 고려해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들이 새로운 반려동물 재입양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일본수의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이 노인에게 주는 의료적 이익을 감안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안에 지역수의사회와 지역자원봉사들로 구성된 고령자동물사육지원시스템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村中志朗, 2015).

한국 역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수의학적 지원과 함께 산책, 양육 교육, 펫로스 개입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김성호, 2018). 또한 일본과 같이 커뮤니케어 시스템 안에 고령 반려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인간-동물 간의 유대(HAB)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한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과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반려견으로 한정된 점이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추후 반려동물의 복지를 포함한 고령 반려인의 연구와 함께 반려묘 인구 증가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석은(2020),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흥성 의견(義犬)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2): 659-670, <DOI: 10.5392/JKCA.2020.20.12.659>.
- 김석은(2021), “반려동물의 양육지식이 양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 333-337, <DOI: 10.5762/KAIS.2021.22.1.333>.
- 김성호·박종두(2018), “반려동물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찰: 서울시 M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3(1): 83-104.
- 김성호(2022), 『지역사회 반려동물 돌봄 지원의 필요성과 방안』, 고양시.
- 김옥진(2018), “노인에 대한 반려동물의 이점에 대한 고찰”,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7(2): 17-31, <DOI: 10.16896/kaaap.2018.7.2.17>.
- 문영희·김효정(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37): 455-477.
- 박정규·배현주·서양원(2013),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기후환경정책연구』, 1(1): 1398-1632.
- 서울교육정책연구소(2017),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동물권 교육의 위계방안 모색: 동물복지교육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시(2019),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서울시.
- 이성은(2017), “노인의 반려동물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599-608, <DOI: 10.14257/ajmahs.2017.07.87>.
- 이성은(2022), “노인의 외로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반려동물 소유의 조절효과”,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1(4): 397-405, <DOI: 10.29056/jncist.2022.08.05.>.
- 장은정·문정민(2018), “1인 노인가구와 반려견의 공생을 위한 주택사례연구”,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6(1): 323-334, <DOI: /10.17548/ksaf.2018.12.30.323>.
-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대전: 통계청.

- SBS(2019), “개그우먼 이수지씨와 흰둥이 사연”, 『SBS 동물농장』(12월 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ICGYsg16048>(2022. 9. 10. 검색)>.
- Johnson, R. A., Bibbo, J. L., & L. Harvey(2019), “Human-animal interaction in the aging boom”, In Aubrey H. Fine (Ed.),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5th ed.)』, 313-327, Academic Press.
- Kato, K. (2011), “The significance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pet animals among elderly residents in need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approach”, 『J of Kyushu Univ. of Health and Welfare』, 12: 21-29.
- Kato, K. (2012), “The significance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pet animals among elderly residents in need of care: Narratives concerned with loss and support”, 『J of Kyushu Univ. of Health and Welfare』, 13: 1-8.
- Yamanoto, M. & L. A. Hart(2019), “Living with assistance dogs and other animals: their therapeutic roles and psychosocial health effects”, In Aubrey H. Fine (Ed.),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5th ed.)』, 61-73, Academic Press.